

##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 요인

### Factors on Continuing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with the Semi-Elderly

김제선\*, 김선웅\*\*

오슬랜드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간협동과정\*\*

Je-Sun Kim(ijeon4@gmail.com)\*, Sun-Woong Kim(haimksw@gmail.com)\*\*

####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준고령자 | 노인일자리사업 | 참여지속성 | 노후경제활동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fi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keeping on the work since retired from the Labor market. To convert the Row-data obtained from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370cases were used to analyze finally. The data analysis was appli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program of SPSS 18.0. The analysis is shows that semi-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more than 270 days a year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 formed 41.2%.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working is payment, and others are gender, solitary life, motivation of working and typ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ducted policy sugges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make income from it, for semi-elderly retiring from the labor market.

■ keyword : | The semi-elderly | Elderly Employment Program | Continuing Participation | Economic Activity of Elderly |

## I. 서론

준고령자는 고령자보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노후생활비 부담이 크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노후경제생활이 불안정하고 사회의 부담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3]. 즉, 자녀양육비, 결혼자금,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고, 본인의 노후생활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달리 사적 이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더 이상 공적 이전 소득 등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준고령자는 은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은퇴를 앞 둔 약 70% 이상의 준고령자가 은퇴 전과 유사한 직종에서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한다[4]. 하지만, 은퇴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설사, 사회공헌 측면에서 일자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지는 못한다[5-7].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를 근거로 일하고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도록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8].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일자리 역시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일부 비판과 더불어, 일자리 제공량의 부족, 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 등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9]. 즉,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의 고용이 확대되고, 그것을 통해 노인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다.<sup>1)</sup>

2015년부터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기존과 같이 만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많이 참

여하는 사업의 변화를 시도, 확대하고 있다[8].<sup>2)</sup> 준고령자들은 노인들과 달리 인건비가 높은 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액 수준도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이전 세대인 준고령자들은 지속적인 일자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와 참여를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준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준고령자가 은퇴한 후 정부 지원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참여여부, 그리고 참여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하였던 준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설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정부시책사업으로 최초 25,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015년 약 34 만자리로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형태의 사업에는 만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도 참여하고 있다.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하며, 행정적지원은 시,도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변인

준고령자는 국가경제발전, 부모 부양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노후엔 자식의 부양을 기대

1) 정부는 2015년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사업의 유형을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취업·창업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제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대상의 지속성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범위를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연령으로 한정하였다.

하기 힘들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다. 이용재(2013)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준고령자들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10].

이런 문제에 대해 기존 연구는 일자리사업과 연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미경·최희진(2011)은 은퇴여부가 취업의사에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은퇴는 '강요된 비경제활동'이라고 하였다[11]. 또한, 정순돌(2011)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예비노인, 베이비부머 등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하였고[12], 남상호(2011), 이소정(2011), 장석인(2011), 김동배(2010), 탁우상(2010) 등도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방안으로서 노인일자리를 제안하였다[4][13-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17]에서 참여자가 근로자로서의 자격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회참여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18]”에서는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려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만, 더 많은 사회적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존 노인에게 한정된 측면이 있고, 준고령자의 일자리사업의 참여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연구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것파, 참여노인들의 심리적만족도, 참여지속에 대한 요인 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첫째, 노인일자리의 경제적 효과[19][20], 신체적 건강증진 효과[20][21], 심리 및 정신건강 향상 효과[21-23], 사회적 관계 향상 효과[20][22][24], 사회적 자본 증진 효과[25], 자아존중감 향상[20][26][27] 및 우울 감소에 효과[26], 그리고 노인과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 효과[28], 삶의 질 향상 효과[29-31] 등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32]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여 일자리참여가 노년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관한 참여 또는 참여 지속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요인 또는 참여 지속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강은나 등(2012)은 노년기 근로지속의 영향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성인자녀로의 경제적 하향 이진, 최장기간 종사한 지위, 또한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1]. 김동배·김세진·이정은(2011)은 노인일자리의 유형 중 공익형의 경우 연령, 성별, 업무만족도, 인건비가 교육형은 업무만족도, 동료와의 관계가 참여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3]. 김진욱·손지윤(2009)은 공공분야에서 인건비 대한 만족도가 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34]. Dessing(2002), Dex et al.(1994) 등은 낮은 임금과 교육수준 등을 노인들이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35][36].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 외에도 준고령자의 참여지속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강은나 등(2012)에 의하면, 노인 이전 세대가 노년기에 도달했을 때 자원을 보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1]. 그렇기 때문에 ‘참여’로 인한 효과보다는 참여 이후의 ‘지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준고령자가 은퇴 후에도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로는 경제적 목적[6][37]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의 유지 및 향상, 사회참여 증대, 자아존중감 증대[25][27]등의 목적도 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노인일자리에 관한 통계를 종합하여 노인 및 준고령자의 일자리 참여 지속성의

요인을 네 가지로 특성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 학력, 건강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며, 두 번째는 가구의 소득 및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주거형태, 가구경제수준, 독거형태 등의 가구 특성이다. 세 번째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동기와 일자리 유형 등을 나타내는 일자리 특성이며, 마지막으로 보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급여액이다.<sup>3)</sup> 노인 또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참여 관련 기존 연구들에 대한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한 경향이 높았다.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연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주요 대상이었고, 준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은퇴에 직면한 세대의 경제적 활동 참여에 관한 욕구를 파악은 하였으나, 이들이 은퇴 이후에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여부의 파악은 소홀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준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하였는가? 둘

째,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등이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 후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으로 2013년 12월 말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전체 노인(280,399명) 중 일차적으로 연령이 ‘60세 이상~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한 뒤,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중 시장자립형을 제외한 사회공헌형(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진입형(인력과견형,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 13,37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변수 정의 및 측정

##### 3.1 종속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가 1년 중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270일 이상 참여한 경우”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년 동안 준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의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변수들의 측정방법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	1년 중 270일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독립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더미)	1=남성, 0=여성
		학 력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 7=대학원이상
		건강상태	1=매우 나쁜 편, 2=나쁜 편, 3=보통, 4=좋은 편, 5=매우 좋은 편
	가구특성	주거형태(더미)	1=비자택, 0=자택
		가구경제수준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독거형태(더미)	1=독거, 0=가족 동거
일 자 리 특 성	참여동기(더미)	1=경제적 이유, 0=비경제적 이유(건강증진, 사회참여, 자원봉사, 시간활용, 자기발전, 기타)	
	일자리유형(더미)	1=시장진입형, 0=사회공헌형	
급 여	급여액(로그)	1년 총 급여액(로그값)	

3)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참여자의 최장기간 종사한 지위, 업무의 내용, 동료와의 관계, 보수수준(급여) 만족도 등은 원데이터(Raw Data)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표 2. 분석대상자의 특성 (단위 : 명, %, 원)

항 목		빈도	비율	
인구학적 특성	성 별	남 성	6,389	47.8
		여 성	6,981	52.2
	학 력	무 학	527	3.9
		초 출	3,946	29.5
		중 출	3,423	25.6
		고 출	3,591	26.9
		전 문 대 출	451	3.4
		대 출	1,374	10.3
	건 강 상 태	대학원 이상	58	0.4
		매우 나쁜 편	21	0.2
		나쁜 편	170	1.3
		보 통	3,995	29.9
		좋은 편	6,007	44.9
가구 특성	주 거 형 태	매우 좋은 편	3,177	23.8
		자 택	10,217	76.4
	가 구 경 제 수 준	비 자 택	3,153	23.6
		하	1,281	9.6
		중하	3,393	25.4
		중	7,813	58.4
		중상	751	5.6
		상	132	1.0
	독 거 형 태	가족 동거	10,857	81.2
		독 거	2,513	18.8
일자리 특성	참 여 동 기	경제적 이유	8,953	67.0
		비경제적 이유	4,417	33.0
	일자리 유형	시장진입형	8,525	63.8
		사회공헌형	4,845	36.3
급 여 특 성	1년 총 급여액(로그값, 평균)		13.94 (SD 1.01)	

표 3. 준고령자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단위 : 명, %)

항 목	빈도	비율
90일 미만	1,309	9.8
90일 이상 - 180일 미만	2,138	16.0
180일 이상 - 270일 미만	4,405	33.0
270일 이상	5,518	41.2
합 계	13,370	100.0

3.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학력, 건강상태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가구 특성으로 주거형태, 가구경제수준, 그리고 독거형태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셋째, 일자리 특성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동기와 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급여액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 이들 변수들 중 명목변수

인 성(1=남성), 주거형태(1=비자택), 독거형태(1=독거), 참여 동기(1=경제적 이유), 그리고 일자리 유형(1=시장진입형)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속변수 중 급여액은 로그값으로 변환하였고 그의 학력, 건강상태, 가구경제수준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Ver)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맞춰 다음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분석

대상자의 기본 특성의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로지스틱회귀분석 전에 사전검증을 위해 독립변수 간 Person 적률상관계수 등을 검사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학적특성, 가구특성, 경제적특성,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특성에서 가구경제수준의 경우 ‘하’는 1,281명(9.6%), ‘중하’는 3,393명(25.4%), ‘중’은 7,813명(58.4%), ‘중상’은 751명(5.6%), 그리고 ‘상’은 132명(1.0%)이었다. 경제적 특성은 참여 동기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참여한 것은 8,953명(67.0%)이었고, ‘비경제적 이유’는 4,417명(33.0%)이었다. 일자리 유형의 경우 ‘시장진입형’은 8,525명(63.8%)과 ‘사회공헌형’은 4,845명(36.3%)이었다. 급여액은 1년 동안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총 급여액으로서, 이를 로그값으로 변환한 평균값은 13.94(표준편차 1.01)였다.

##### 2.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및 지속성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후 중도 포기하지 않고 1년 중 27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자들의 41.2%인 5,511명이 ‘지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270일 미만에 해당하는 ‘탈락’의 경우는 58.8%인 7,859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에 대한 빈도를 살펴볼 경우에도 같은 특징을 보인다.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기간과 비교해 보면, 준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참여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기간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chi^2=1877.308, p=.000$ ). 각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른 평균 참여 기간은 교육형이 평균 247.19일(표준편차 74.60)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장형이 평균 247.17일(표준편차 118.37)로 길게 나타났다. 공익형이 평균 236.97일(표준편차 91.78), 인력파견형이 평균 230.23일(표준편차 109.47), 그리고 복지형이 평균 228.48일(표준편차 84.28)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자인 준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1년 중 평균 238일 정도 이상을 일하고 있고, 교육형(30.6%) > 인력파견형(22.5%) > 시장형(16.2%) > 공익형(16.1%) > 복지형(14.6%) 순으로 시장진입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전체 노인의 경우 공익형(61.2%) > 복지형(19.1%) > 교육형(10.8%) > 시장형(19%) > 인력파견형(3.1%) 순으로 사회공헌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 결과와 비교된다.

이들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급여액은 평균 1,745,015원(표준편차 1,941,851.39)이었는데, 이는 각 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평균 급여를 받는 일자리유형은 인력파견형이었는데, 평균 3,765,297원(표준편차 3,452,163.67)이었고, 그 다음은 시장형으로 평균 1,859,460원(표준편차 1,793,006.50)이어서 시장진입형의 두 일자리유형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형은 평균 1,216,726원(표준편차 407,512.31), 복지형은 1,156,230원(표준편차 436,257.11),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형은 평균 1,011,236원(표준편차 450,953.63)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진입형 참여 노인이 사회공헌형 참여 노인보다 평균 급여액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사회공헌형의 일자리유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급여액은 참여노인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 3.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의 요인

준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방법으로 그 결과를 얻기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동기와 학력 간 상관관계 계수인  $r$ 이  $-.361$ 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이 보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1-1	1-2	1-3	2-1	2-2	2-3	3-1	3-2	4-1
인구학적 특성	1-1 성별	1								
	1-2 학력	.010	1							
	1-3 건강상태	-.016	.169***	1						
가구 특성	2-1 주거형태	.006	.003	-.100***	1					
	2-2 가구경제수준	.032***	.169***	0.92***	-.218***	1				
	2-3 독거형태	-.011	-.101***	-.060***	.180***	-.114***	1			
일자리 특성	3-1 참여동기	.016	-.361***	-.097***	.159***	-.339***	.110***	1		
	3-2 일자리유형	.111***	-.012	.055***	.047***	.021*	-.037***	.141***	1	
급여 특성	4-1 급여액	-.102***	-.063***	.046***	-.015	-.019*	-.025**	.103***	.175***	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준고령자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의 영향요인

변인		B	S.E.	Exp(B)
인구학적 특성	성별(기준:남성)	-.564***	.058	.569
	학력	.009	.023	1.009
	건강상태	-.024	.037	.976
가구 특성	주거형태(기준:비자택)	.109	.067	1.116
	가구경제수준	.005	.039	1.005
	독거형태(기준:독거)	.143*	.070	1.153
일자리 특성	참여 동기(기준:경제적이유)	.442***	.071	1.556
	일자리유형(기준:시장진입형)	.243***	.059	1.276
급여 특성	급여액(로그값)	.829***	.026	2.290
(상수)		-9.521***	.385	.000
		$x^2=1244.342 / p<.001 / -2LL=8794.434 / R^2=.168$		

\* $p < .05$ . \*\* $p < .01$ . \*\*\* $p < .001$ .

도 낮은 계수를 보이고 있어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준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일자리 특성, 그리고 급여 특성으로 구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우도비가 유의하고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2LL=8794.434,  $x^2=1244.342$ ,  $p < .001$ ), 설명력은 16.8%( $R^2=.168$ )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성( $p < .001$ )이, 가구 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독거형태( $p < .05$ )가, 일자리 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참여 동기( $p < .001$ )와 일자리 유형( $p < .001$ )이, 그리고 급여 특성의 1년 동안의 총 급여액( $p < .001$ )이 준고령자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의 성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이유의 참여 동

기와 일자리 유형, 그리고 무엇보다 급여액이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준고령자가, 독거형태의 준고령자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며, 그리고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준고령자가 참여 지속성이 높았다. 또한, 급여액이 많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요인들 중 참여 동기, 급여액, 일자리 유형 등의 요인들은 대부분 준고령자들이 은퇴 후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소득 유지와 확보에 관련된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양윤정·정영순(2011), 강은나 등(2012)의 연구의 경우 경제적 변수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나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1][18], 김동배 등(2011)

의 연구들에서 오히려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참여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결과[32]들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대비되는 연구가 나온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한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두 대상 간의 특성 및 참여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노인보다 준고령자들은 은퇴 이전 노동시장 경험과 직무의 내용, 그리고 교육 배경 등 인적자원 특성이 다르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옥·손지윤(2009) 등의 연구에서 급여액의 수준 등이 참여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31], 이석민(2012), 이석민·원시연(2012)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으로써 참여 지속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38][39].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족하는 수준으로 급여가 제공된다면 참여 지속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시장진입형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참여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노인들이 참여했던 사회공헌형보다 시장진입형이 평균급여액도 더 높고, 은퇴 후 직전 노동시장의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은퇴 후일자리 연계와 소득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원하는 준고령자에게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만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7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근로 지속)한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자 중 41.2%에 이르고 있었다. 두 번째, 준고령자

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급여액으로 나타났고, 참여 동기와 일자리 유형 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준고령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노후의 경제적 소득 확보를 위해 급여액이나 관련 요인들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비해 준고령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중 시장진입형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얻는 급여액이 노인 집단과 비교해서 훨씬 높았다. 하지만 소득 요인 외에도 준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이나 독거 유무에 따라서도 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1][32]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내용과, 가족과 함께 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세대보다 그렇지 못한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길다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여성 준고령자가 남성 준고령자보다 약간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 준고령자의 일자리 형태가 여성들에 더 많이 있거나, 여성 준고령자가 해당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더 친화력이 있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준고령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여성 준고령자가 남성 준고령자에 비해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더 적고, 자녀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가구가 노인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영향요인이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참여 동기 중 경제적 목적을 통해 참여할 때 준고령자의 참여 지속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이후에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자리 참여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 때 지속성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소득 획득 및 유지라는 경제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시켜 줄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준고령자가 사회공헌형보다 시장진입형에서 활동하면서 평균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진입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준고령자의 본격적인 은퇴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이 많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의 변화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를 준다고 하겠다. 준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연장 중심의 경력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본인들이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앞으로 은퇴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노인 또는 준고령자, 심지어 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해당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2. 제언

준고령자들이 201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를 통해 준고령 이상의 참여자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보충 또는 확보 등이 라는 측면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급여액을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선택하여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전체 노인들이 1년 동안 받는 총급여액의 평균은 약 1,292천원(표준편차 843,815.36)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1,852천원(표준편차 2,107,413.28)이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급여 기준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도 다양하게 개발·제공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소득액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자리 참여 이전의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은퇴 이전의 직업 유형 등에 따라 일자리 참여로 얼마나 경제적 만족감 얻고 있는지 등은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준비 프로그램으로서 준고령자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고용 유지 또는 일자리 참여 관련

프로그램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퇴직 전부터 연계된 은퇴 후의 일자리사업들에서 참여나 지속성 등이 높다는 연구[40]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은퇴 이전 직무와의 동질성을 활용한 퇴직 연계 고용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때문에 퇴직 3~5년 전부터 준비프로그램이 병행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지속성 또한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대해 연령별로 교육과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등이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준고령자의 은퇴 이전 직업적 특성, 참여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히 소득이 높은 취업·창업 유형, 경력유지 유형 등의 사업 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유형은 기존 노인일자리의 시장진입형 또는 시장자립형으로, 일자리 참여 또는 근로 욕구 수준 등에 맞는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일반 노동시장과 연계되어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준고령자의 성별이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노동시장 및 정부지원 일자리 형태는 남성 중심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준고령자나, 독거 준고령자가 더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후속 연구와 함께 일자리 형태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은퇴 직전의 준고령자의 일자리관련 욕구 및 참여지속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는 2차자료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참여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강은나 등(2003), 김동배 등(2011), 이재영·김진숙(2012), 양윤정·정영순(2011)에서 제시되었던 업무 내용, 보수 만족도, 동료 등과의 관계 만족도, 참여에 대한 주관적 만족 등[1][18][32][33]

이 “새누리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둘째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함으로 그 외에 있는 준고령자들에 대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1]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의사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5권, 단일호, pp.159-182, 2003.

[2] 박정기, 노영학, “베이비부머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주거정책방향 연구,” 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87-214, 2012.

[3] 최영준, “베이비부머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탐색,” 경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23-145, 2012.

[4] 장석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제8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자료집(보건복지부), 2011.

[5] 이준협,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베이비부머 은퇴 줄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한국경제주평, 2013.

[6] 노영훈, “베이비부머 세대 가계의 주택자산 구성과 은퇴,” 재정포럼, 제6권, 단일호, pp.27-51, 2011.

[7] <http://www.oecd.org/employment/emp/ageingandemploymentpolicies.htm>.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4.

[9] 남기철, 한국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개와 쟁점, 2010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한국노년학회), 2010.

[10]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11] 서미경, 최희진, “비취업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취업의사 결정요인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3권, 단일호, pp.125-154, 2011.

[12] 정순돌, “우울 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2권, 단일호, pp.305-324, 2011.

[13] 남상호,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Issue&Focus, 2011.

[14] 이소정, 베이비부머의 인적자원 특성 및 활용 방안, 제10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베이비부머의 인력활용 전략 모색 자료집(보건복지부), 2011.

[15] 김동배,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황과 은퇴에 따른 사회적 이슈, 2010 노인사회참여활성화포럼 자료집(보건복지부), 2010.

[16] 탁우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봉사활동에 의한 사회참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2010 노인사회참여활성화포럼 자료집(보건복지부), 2010.

[17] 심재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pp.197-235, 2013.

[18] 양윤정, 정영순,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885-903, 2011.

[19] 고희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단일호, pp.61-87, 2012.

[20] 기영화, 김남숙,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화 이론모델 정립 현장사례연구: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pp.25-49, 2011.

[21] 최혜지, “센의 인간실현력(Human capability) 관점에 근거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1호, pp.135-166, 2013.

[22] 고재욱, 이동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09-1228, 2011.

[23] 김옥희,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별 및 한 일 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4호, pp.113-137, 2011.

[24] 이소정,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9권, 단일호, pp.331-355, 2013.

[25] 기영화, "지방정부 노인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 근거이론,"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pp.265-295, 2013.

[26] 임중철, 주경희, 임병우, "노인의 일자리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권, 단일호, pp.29-50, 2012.

[27] 권치영, 김선웅, 임중철, 이홍직,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2호, pp.427-443, 2007.

[28] 이경옥, "노인과 지역사회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623-640, 2011.

[29]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25-235, 2014.

[30]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참여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60-170, 2014.

[31]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23-132, 2014.

[32] 이재영, 김진숙,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양기대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8권, 단일호, pp.353-382, 2012.

[33] 김동배, 김세진, 이정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참여만족도가 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 공익형과 교육형 참여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pp.101-126, 2011.

[34] 김진옥, 손지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29-145, 2009.

[35] M. Dessing, "Labor supply, the family and poverty: the S-shaped labor supply curv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49, No.4, pp.433-458, 2002.

[36] S. Dex, M. Taylor, and S. Lissenburgh, *Women and Low pay: identifying the issue*, Equal, 1994.

[37]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통계청, 2012.

[38] 이석민,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계량경제학, 통계적 정책평가방법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4호, pp.259-284, 2012.

[39] 이석민, 원시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평가, 발전적 평가이론과 근거이론적 방법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4호, pp.207-232, 2012.

[40] 최성재, 장인협,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저 자 소 개

김 제 선(Je-Su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5월 ~ 2016년 2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임연구원
- 2016년 3월 ~ 현재 : 오슬랜드 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행정콘텐츠, 교육콘텐츠

김 선 웅(Sun-Woong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5월 ~ 현재 : 남양주시니어클럽 관장
- 2016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정책 및 휴먼서비스콘텐츠